

2017-2

영글(영화와 글쓰기) 클럽
우수사례 모음집



C/O/N/T/E/N/T/S

이창엽, 이현정, 신지섭 학생의 활동보고서

1

2

김동갑, 신혜영 학생의 활동보고서

박소희, 송인선, 민정현 학생의 활동보고서

3

2017학년도 2학기 영어 클럽

I. 이창엽, 이현정, 신지섭 학생의 활동보고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영화감상 장소	해룡학사 소통실
영화 제목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감독	스탠리 큐브릭
주연	케어 돌리, 게리 록우드
영화 장르	SF
줄거리	<p>인류에게 문명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디스커버리호는 목성을 향해서 날아간다.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실내 장치와 구조물들, 선장 보우만(David Bowman: 케어 돌리아 분)과 승무원 풀(Frank Poole: 게리 록우드 분)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다뉴브"가 흐르는 가운데 편안한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p> <p>평온하던 디스커버리호에 갑자기 재난이 찾아온다. 우주선 내부에서 일어난 재난은 컴퓨터 할(HAL 9000: 더글러스 레인 목소리 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할은 풀을 우주선 밖으로 던져버리고, 보우만까지도 모선 밖으로 끌어내지만 그는 필사의 노력으로 할을 제압한다. 보우만은 마침내 목성 궤도에서 문제의 검은 돌기둥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주의 급류에 휘말리게 된다.</p> <p>이때부터 보우만이 지구로의 귀환을 노력하고, 신비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다. 지구에 돌아온 보우만은 임종을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숨을 거두는 보우만이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곳에 검은 돌기둥이 보이고 이제 막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태아의 모습이 보인다. 그 태아는 새로 태어나는 보우만 자기 자신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이창엽(의생명과학과 20154130)

이 영화를 보고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 옛날에 만든 영화가 정말 미래의 문물에 대해 놀랍도록 잘 표현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겨우 등장한 시기인데 우주선의 디테일한 부분, 인공지능,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등을 생각하고 저렇게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감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고, 목성 여행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 상상력을 잘 발휘한 것 같다. 그 기묘하고 오묘한 느낌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으며 사실 너무도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인공지능 할이 자신의 전원을 끄려는 인간들의 대화를 입모양을 통해 분석하고 인간을 밖으로 내쫓는 장면이다. 인공지능이란 존재를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까지 나타냈다. 이는 현재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으로 그저 놀랍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검은 비석의 정체나 외계의 존재 등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찝찝한 마음도 조금 남지만, 관객에게 하여금 한 번씩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 열어 놓은 장치인 듯하다.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그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그런 철학적 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놀라운 통찰력을 나타내는 영화지만 상당히 난해하고 불필요하게 길고 지루한 부분들이 많아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이현정(의생명과학과 20155136)

‘모노리스’ 인류 진화의 기폭제이자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실마리

이 영화는 원시시대, 달 탐사, 목성탐사를 위해 우주를 향해하는 유인 우주선 디스커버리 1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토성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4개의 장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요소는 검은색의 신비한 돌기둥 ‘모노리스’이다.

영화는 아직 유인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원시 인간들의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는 곳에 정체불명의 검은색의 돌기둥 하나가 나타난다. 이 돌기둥은 주변의 자연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인 것 같은 기묘한 소리가 난다.

원시인류는 모노리스를 처음에는 두려워 하지만 곧 호기심을 보이며 가까이 가서 만져본다. 그 후 갑자기 이 원시 인간들은 동물의 뼈를 집어다가 돌에 내려치는 방식으로 다듬어서 최초의 ‘도구’를 만든다. 다른 동물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하자 원시 인간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들을 위협한다. 겁에 질린 동물들은 달아나고 원시 인간은 이 최초의 ‘도구’인 뼈를 하늘 높이 던지는데, 이 뼈가 갑자기 우주선으로 바뀌면서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었던 인간이 모노리스의 등장으로 인해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알게 된다. 마셜 맥루한은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고, 도구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 라는 말을 남겼다. 즉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류는 다른 동물과는 대비되는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인류 진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그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해준 모노리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영화에서 모노리스가 발견된 달과 그 모노리스로부터 신호를 받는 목성을 탐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결국 영화에서는 모노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해주지 않는다. 다만 영화의 말미에 디스커버리 1호의 유일한 생존자 데이브가 토성에 도착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모노리스가 그의 눈앞에 등장한다. 곧이어 태아가 등장하며 그 작은 손가락으로 모노리스를 가리킨다. 이는 죽음과 탄생이라는 불변의 진리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를 모노리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Hal9000’ 두려움을 느끼는 인공지능

목성 탐사를 위해 지구에서 출발한 유인 우주선 디스커버리 1호에는 최첨단 인공지능 Hal9000이 있다. Hal은 우주선 내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우주선을 운영한다. 우주선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방법을 제시하며, 문의 여달힘부터 동면중인 인간들의 상태까지 우주선의 모든 시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영화 속 우주선은 마치 현실에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오늘날의 집과 같다. 아직 사물인터넷(IoT)은 발전중인 기술이지만 곧 Hal이 통제하는 우주선처럼 사람들의 집도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Hal은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최고의 인공지능이었지만 멀쩡한 부품에 문제가 있다며 오작동을 한다. Hal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낀 데이브와 프랭크는 Hal 모르게 컴퓨터를 재부팅하려고 한다. 이를 알아차린 Hal은 컴퓨터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해 데이브와 프랭크를 우주선 밖으로 내쫓으려 한다. 그 결과 프랭크는 우주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간신히 우주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 데이브는 Hal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Hal은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두렵다. 멈춰 달라’고 애원한다. 이 에피소드는 나에게 두 가지 의문점을 안겨주었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오작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인공지능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

비록 매우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인공지능도 오작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며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이다. 영화 속의 Hal9000처럼 자신은 완벽하다며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일까? 그렇다면 인간이 그를 고치려 컴퓨터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인공지능의 ‘두려움’은 영화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과 같은 의문들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은 아직 인간의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진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일은 없다. 만약 과학이 더욱 발전하여 ‘의식’을 인공지능에 넣어줄 수 있게 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인간수준의 의식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기계나 인공지능을 다룰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철저히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주시대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주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지구 이외의 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이다. 우주식민지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 지구에서 생존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하나의 대책이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모노리스’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기 위해 달과 목성을 탐사하는데 이는 우주를 탐사하는 첫 번째 이유에 속한다.

하지만 둘 중 어떠한 이유로든 인류의 우주 진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이 우주에 나갔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로는 우주에서의 장기간 비행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주에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개월, 길게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우주선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 영화에서는 우주선에 프랭크와 데이브를 제외한 목성 조사팀원 6명은 캡슐 속에 동면상태로 이동한다. 인공동면은 생체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냉동인간과는 달리 신진대사를 낮추는 방법이다. 인간은 비동면 동물이지만 연구를 통해 동면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어 인공동면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인간을 냉동하는 대신 인공동면을 유도하여 적은 양의 양분과 산소로 인간을 우주의 먼 곳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이다. 미래의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인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이란 생명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학문으로, 이를 이용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을 만들 수 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대신 무중력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이 새로운 합성생물이 개발된다면 우주선에 무거운 산소탱크를 장착할 필요 없이 이 생물을 키워 산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영글 클럽(2017-2)

‘마지막으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지구와 다른 행성에서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의 바이오리듬은 주로 햇빛과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연구를 통해 체내의 호르몬을 몸 밖에서 합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착해서 살게 될 행성의 낮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리듬을 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호르몬들을 때에 맞춰 인공적으로 인체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SF영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글 모임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과 비전을 확립할 수 있었다.

신지섭(의생명과학과 20144128)

인류가 문명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서 C, 클라크 Arthur C. Clark 와 스탠리 큐브릭 Stanley Kubrick은 영화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 에서 ‘폭력’ 이 문명의 근원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신문명’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근원 : 폭력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명장면은 시원기 인류가 던진 뼈가 우주선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큐브릭은 이 한 Scene에 400만년 인류문명발달사를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명장면’ 이 아니다.

상영이 시작된 후 대략 15분쯤 지났을 때, 최초의 모노리스를 발견한 시원기의 인류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첫 번째 모노리스가 초지성이 인류에게 문명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 한다. 생각의 단초는 모노리스를 발견한 시원기 인류의 행동이다. 모노리스를 마주한 그들은 갑자기 주위의 뼈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이용’의 방식이다. 뼈를 주워든 그들은 갑자기 주위의 동료 하나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장면에서 뼈는 죽은 동물들의 두개골을 부수는데 이용된다. 이 신은 1분 이상 길게 편집되어 나오고 있는데, ‘문명의 발달’을 말한다고 보기에겐 무언가 괴팍한 방식이다. 과연 이 장면을 통해 큐브릭과 클라크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였을까.

큐브릭과 클라크는 이 장면을 통해 인류 문명의 근원에 폭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인간 내면의 폭력성이 발현되며, 주위 사물을 ‘폭력의 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화 하는 과정이 문명의 발달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원작의 작가인 클라크의 다른 작품에서 많이 발견된다. 클라크는 ‘라마’라는 장편소설에서 전 우주의 지성문명을 관찰하는 ‘프라임 모니터’를 등장시켜, 그의 입을 통해 인류 행동양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발달한 지성과 이성, 그리고 그에 걸맞지 않은 폭력성.’

꼭 그의 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고도로 발달했다는 현재의 인류문명에도 ‘폭력’이 주된 발달요인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학과 문명을 동일시하는 현재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대전쟁이 벌어진 시기를 통해 무기개발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실생활에 하나 둘 응용되면서 인류에게 또 다른 ‘문명의 발전’을 안겨주고는 했던 것이다.

왜 인류의 문명, 이성을 가졌다는 인류의 문명이 폭력의 힘을 빌려 발달해야 하는가. 왜 폭력을 내재한 채로 현대문명이 발달하는가. 큐브릭과 클라크가 이 장면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나아가, 흔히들 ‘문명을 전해준 초지성의 상징이다.’고 해석하는 모노리스는 오히려 인류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감시이자 경고가 아니었을까.

기계. 전자 문명에 대한 예찬과 추앙, 그리고 탈출.

앞서 얘기했듯이, 인류 문명은 폭력에서 출발했고 그것에 의해 발전해 왔다. 인류의 원죄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문명에 예속되어 맹목적인 예찬과 추앙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한 말로, ‘과학만능주의’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세 번째 파트인 ‘Jupiter : Beyond the Infinite’는 이러한 점에 대해 극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infinite’와 ‘Jupiter’는 모두 신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에서는 신 앞에 최첨단 테크놀러지의 상징인 ‘디스커버리’라는 우주선을 보내 ‘폭력에 의한 문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속’이라는 원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HAL9000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데이브의 투쟁은 이 원죄를 벗기 위한 투쟁임이 분명하다. HAL9000은 ‘문명과 이성’의 상징이었으나, ‘극도로 이성적인 추론과정’ 속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면서 데이브를 제외한 4명의 승무원을 죽이게 된다. 여기서 큐브릭과 클라크는 불완전한 인류의 창조물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현대에 만연한 ‘과학만능주의’를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다. 어쨌건, 데이브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정 속에서 ‘문명’의 상징인 HAL9000의 논리회로를 모두 파괴하며 이를 통해 ‘문명’이라는 원죄를 벗은 최초의 인간이 된다.

그는 원죄를 벗은 채 목성 근처에서 세 번째 모노리스와 조우하게 된다. 세 번째 모노리스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모노리스이며, 원죄를 벗은 인류를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도약시켜주는 것이다.

데이브가 이 모노리스를 바라보며 다가서자 화면에는 극도로 환상적이며 아름답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교차편집된다. 이 장면은 지구의 익숙한 자연풍광을 네거티브로 찍어 색상처리한 것이다. 20여분간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영상은 그 동안 인류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허구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디디고 살던 지구의 풍광조차 인간이 인식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풍광의 중간 중간에 서로 다른 색으로 채색되어 클로즈업 되는 데이브의 왼쪽 눈 홍채는, 기존의 관념들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겪으며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겪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신이 가졌던 관념이 모두 파괴되는 극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데이브는, 자신의 임종을 목격하게 된다. 이 임종은 기계. 전자 문명에 예속된 기존 인류의 실존적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다음 장면, 임종한 데이브 옆에 모노리스가 서 있으며, 모노리스를 통해 본 우주에는 태반에 싸인 태아가 눈을 뜬 채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바야흐로 원죄를 벗은 최초의 신인류가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지구에 있어 새로운 문명, 폭력이 배제된 문명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데이브의 죽음과 새로운 출생으로 상징되듯이, 우주의 원리는 ‘생명의 윤회, 나아가 만물의 유전’임을 일깨우고 있다.

아일랜드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영화감상 장소	해룡학사 소통실
영화 제목	아일랜드
감독	마이클 베이
주연	스칼렛 요한슨, 이완 맥그리거
영화 장르	SF/스릴러
줄거리	<p>전 인류가 흥분한 최고의 화제 '인간복제' 이제, 거대한 미래가 다시 창조된다! 100년에 한 번 숨막히는 거대한 SF 액션이 온다!</p> <p>지구 상에 일어난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일부만이 살아 남은 21세기 중반. 자신들을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 믿고 있는 링컨 6-에코(이완 맥그리거)와 조던 2-델타(스칼렛 요한슨)는 수백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빈틈없는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몸 상태를 점검 받고, 먹는 음식과 인간관계까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추첨이 되어 뽑혀 가기를 바라고 있다.</p> <p>최근 들어 매일 같이 똑 같은 악몽에 시달리던 링컨은 제한되고 규격화된 이 곳 생활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를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스폰서(인간)에게 장기와 신체부위를 제공할 복제인간이라는 것! 결국 '아일랜드'로 뽑혀 간다는 것은 신체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p> <p>어느 날, 복제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되고 장기를 추출 당하며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동료의 모습을 목격한 링컨은 아일랜드로 떠날 준비를 하던 조던과 탈출을 시도한다. 그간 감춰졌던 비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외부의 모습을 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탈주를 계속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이창엽 (의생명과학과 20154130)

이 영화는 복제인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조명한 것 같다.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으로 면역거부반응도 없고 자신에게 맞는 기부자를 찾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복제인간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허나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그저 물품으로만 생각하고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복제인간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미래의 언젠가에는 정말 나올 것 같다. 그 때에 이런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류의 발전속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라졌고 언젠가 AI는 감정과 사랑 능력 또한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허나 이들을 우리가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힘들 것 같다. 만들어진 AI들을 저렇게 아일랜드라는 꿈의 섬 등으로 세뇌시키고 당첨 서비스 등을 통해 우민화하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악행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복제인간 등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다.

이현정(의생명과학과 20155136)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지구. 인간들은 외부환경과 단절된 채 두 개의 타워로 된 하나의 빌딩 안에서 생활한다. 지구의 거의 대부분이 오염되었지만 유일하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섬(island)이 있는데, 이는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토피아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만이 아일랜드로 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애초에 그런 아일랜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빌딩과 내부 운영 시스템은 정교하게 고안된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 감옥에 수감된 건 죄수들이 아니라 ‘복제 인간들’이다.

이 모든 것은 메릭 박사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다.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의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 장기나 혈액, 골수 등이 필요할 때 복제인간의 것을 떼어 제공한다. 복제인간들의 유일한 꿈인 ‘아일랜드’에 가는 것은 곧 ‘황천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메릭 박사는 처음에는 식물인간 상태의 복제인간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복제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하여 지하에 복제인간들이 진짜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이를 비밀로 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복제인간을 제작한다고 속인다.

사실 장기이식이나 대리출산을 위해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설정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보다 인공장기나 대리모가 연구의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복제인간이 살 수 없다는 설정도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복제인간인데 왜 ‘식물인간’ 상태일 때는 고객들이 이를 수용하고, 살아 움직이는 복제인간에는 거부감을 느낄까? 그건 복제인간이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을 자신과 같은 한 ‘개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살인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본능적인 감정과 윤리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제인간과 같은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러한 제어장치가 사라지는 것 같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위해 원정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주로 중국으로 장기이식을 하러 가는데 중국은 장기이식이 비윤리적으로 자행되는 나라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장기를 쓰게 되어있지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심수 및 사형수의 장기를 무단으로 적출해서 사용한다.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상황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복제인간, 더 나아가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막기 위해서는 삶에도 죽음에도 ‘품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웰빙(well-being)뿐만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함을 느낀다.

메릭 박사는 자신이 복제인간을 창조했으니 자기는 복제인간을 죽일 권리도 있다고 말한다.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다. 이 부분에서 창조자는 피조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지, 인조인간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따라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생각하여 복제인간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비록 부모는 자식을 낳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현행법상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인조인간도 독립적인 주체로 봐야 할까? 나는 인조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독립적인 주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유의지를 갖는 인조인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지대로 다룰 수 없는 인조인간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낼 이유 역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과 탐구심 때문에 인조인간을 개발하는 금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와 같은 철학적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미래기술들이 앞으로 어디에 적용될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상상해 볼 수도 있었다.

영글 클럽(2017-2)

영화는 복제인간 링컨 6-에코의 악몽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잠에서 깨니 벽면에 ‘수면장애 감지’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니 소변기에 달린 모니터에서 ‘체내 나트륨 과다’라는 표시가 나타났다. 식사를 하러 가서 손목에 있는 밴드를 기계에 찍으면 복제인간의 영양상태 등 신체에 대한 정보가 식당 아주머니의 카운터 스크린에 나타난다. 식당 아주머니는 배식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식단으로 각각 배식해준다. 이러한 기술이 미래에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물인터넷과 바이오센서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영화 초반에 남자 복제인간인 링컨 6-에코와 여자 복제인간인 조던 2-델타가 홀로그램 복싱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러한 홀로그램 스포츠가 생겨날 것 같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대로 홀로그램도 움직이고, 양 플레이어의 홀로그램의 힘을 서로 같게 설정한다면 남녀가 같은 조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이 확대된다면 남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정이 좀 허술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액션에만 치중한 면이 아쉬웠지만, 미래사회의 기술을 미리 보여주고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통해 윤리와 도덕,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영화였다.

신지섭(의생명과학과 20144128)

아일랜드에 간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속에서 다른 복제인간과 달리 서로 사랑을 하고 자신들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죽는 것임을 안 두 남녀 복제인간이 지상 밖으로 나와 실재를 보고 인간들과 싸워 결국에는 복제인간들을 모두 탈출시키는 내용이다. 영화는 단순히 인간복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목숨 연장을 위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죽이는 것, 비록 이것이 영화에서의 일일 지라도 단순히 영화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많은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충분히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할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다. ‘복제된 인간은 인간으로써 권리를 무시해도 될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과연 바람직할까? 우리 또한 영화에서의 복제인간처럼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지며 그 잔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결과와 잔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동물들을 이용한 수많은 실험이나 산림 파괴와 같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진 지금에선 어찌 보면 별 것 아니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지금도 일부 미개척지 원주민들은 이러한 인간활동을 야만적이라 여긴다. 마찬가지로 이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개발해간다면 미래에 언젠가는 지금 생각하면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에서처럼 만일 우리가 인간복제를 하게 된다면 그 복제된 인간은 우리와 똑같이 사고가 가능하고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단순히 복제된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해서 라는 이유로 그들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 생명체가 아닌 자신의 어떤 소유물체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입장을 바꾸어서 복제된 인간이 반대로 자신을 닮은 인간에게 “내가 좀 더 살기 위해 당신 좀 죽어줘야겠소” 라고 반발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것인가. 그들도 어찌되었든 복제되었다 사실만 제외하면 인간과 다를 게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 세뇌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람마다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 다른데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는 길이 행복해지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뤄가며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또 1등을 쫓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을 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 그 최종 목표는 많이 모인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 끝에 도달하면 사실은 허무함, 공허함과 외로움일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위해 스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꿈이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길을 어려서부터 세뇌 받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세뇌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복제인간들처럼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학을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AI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영화감상 장소	해룡학사 소통실
영화 제목	AI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주연	할리 조엘 오스먼트, 주드 로, 프란시스 오코너
영화 장르	SF, 드라마, 판타지
줄거리	<p>인간은 그들과 가장 닮은 것을 창조해 냈다. 그러나... 소년은 사랑이라 말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라고 한다.</p> <p>과학문명은 천문학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극지방의 해빙으로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가던 미래의 지구. 모든 생활을 감시받고, 먹는 음식조차 통제되는 그 세계에서 인간들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가진 인조인간들의 봉사를 받으며 살아간다. 정원가꾸기, 집안 일, 말 동무등 로봇이 인간을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단 한가지 '사랑'만 빼고...</p> <p>로봇에게 '감정'을 주입시키는 것은 로봇공학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자, 논란의 쟁점이기도 했다. 인간들은 로봇을 정교한 가재 도구로 여길 뿐, 그 이상의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인간들은 로봇에게서 가재 도구 이상의 가치를 찾게 된다.</p> <p>어느 날 하비 박사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하비 박사의 계획에 따라 로봇 회사 Cybertronics Manufacturing을 통해 감정을 가진 최초의 인조인간 데이빗이 탄생하고, 데이빗은 Cybertronics사의 한 직원, 헨리 스윈튼의 집에 입양된다.</p> <p>인간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래밍된 최초의 로봇 소년 데이빗. 스윈튼 부부의 친아들 마틴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된 상태다. 데이빗은 그들 부부의 아들 역할을 하며 인간사회에 적응해간다. 스윈튼 부부를 부모로 여기던 데이빗은 마틴이 퇴원하면서 버려지고 만다.</p> <p>엄마가 들려준 피노키오 동화를 떠올리며 진짜 인간이 되어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빗은 자신의 장난감이자 친구이며 보호자인 테디 베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만난 남창 로봇 지골로 조가 데이빗과 동행하고 두 사이보그는 힘겨운 여정을 거치며 수몰된 맨하탄까지 찾아가지만...</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이창엽(의생명과학과 20154130)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였다.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 것 같다. 정말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로봇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줄 수 있다면 말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핵가족화 현상으로 독거노인 등의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존재에 차이를 주는 그런 요소였는데 그런 경계를 없앤다는 점에서 인류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정말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여길 수 있을지 문제이다. 나에게서 로봇들이 너무나 사람 같은 모습들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로봇 같은 모습도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기에는 이질감이 들었다. 만약 나왔다면 이런 로봇을 아들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 영화에서의 주된 주제는 인간이 되고 싶은 AI의 꿈과 엄마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정에서의 인공지능과 성문화로의 인공지능의 적용,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세상, 심지어 외계인까지..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했다는 생각도 든다. 끝날듯하며 질질 끌리며 끝나지 않는 엔딩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다. 하나의 주제에만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흥미로운 주제를 잘 풀어냈다는 것에서 좋았던 영화인 것 같다.

이현정(의생명과학과 20155136)

한 박사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바로 ‘어린이 AI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로봇은 어린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들은 과연 그 로봇이 어디에 쓸모가 있냐고 묻는다. 박사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한 여자가 묻는다. “우리가 과연 AI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어린이 AI 로봇 ‘데이빗’은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가정으로 가게 된다. 엄마인 ‘모니카’는 처음에는 데이빗을 소름 끼쳐하지만 점점 그와 가까워지며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모니카의 진짜 아들 ‘마틴’이 깨어나고, 데이빗은 마틴의 심술궂은 계략에 빠져 모니카와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산다. 결국 데이빗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부부. 모니카는 데이빗에게 시골로 놀러 가자며 그를 폐기시킬 제조회사 ‘사이버트로닉스’로 차를 몰고 간다. 그러나 데이빗에 대한 정 때문인지 가는 도중 모니카는 데이빗을 숲 속에다 버리면서 절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하고 떠난다. 데이빗은 자신이 로봇이기 때문에 버려졌으니 인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는 엄마가 읽어주었던 동화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푸른 요정(blue fairy)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데이빗은 로봇이지만 사랑을 할 줄 알고 꿈을 꾸기도 한다. 동화 속 인물인 푸른 요정이 실재할거라 믿으며 인간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다.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데이빗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점점 인간같이 보였다. 처음에는 데이빗이 소름 끼쳤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다. 앞서 영화의 초반에 던져진 중요한 물음인 우리가 과연 AI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로봇을 사람처럼 받아들인다면 사랑할 수 있다’인 것 같다. 나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란 걸 안 순간부터는 로봇이라도 사람처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영화 속에는 다양한 AI 로봇이 등장한다. 아이를 돌보는 유모 로봇도 있고, 인간과 잠자리를 하는 매춘 로봇도 있다. 매우 색다르지만 나는 이 로봇들이 꼭 필요하며 인간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매춘 로봇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 없이 성적 쾌감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로 인해, 불법매춘이 사라지고 에이즈나 성병이 예방될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관이나 외벽청소부 등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은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 클럽(2017-2)

영화에서처럼 한 로봇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여러 기능을,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며 청소를 하고 간호사 기능도 있는, 수행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한 customizing robot을 만드는 사업도 비전이 있어 보인다.

영화에서는 마치 노예사냥꾼처럼 버려진 로봇들을 잡는 로봇사냥꾼들이 나온다. 그들은 폐기대상 로봇들을 잡아가서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서커스 쇼에 팔아 넘긴다. 서커스 쇼에서는 로봇을 대포에 포탄처럼 넣어 발사시키거나 로봇을 포박해놓고 뜨거운 녹물을 붓는 등 여러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로봇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로봇이 파괴되는 것을 보며 열광한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우월성을 로봇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확인한다.

이는 인간의 치졸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눈앞에서 파괴되는 로봇들은 분명 한때는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잔인한 방법으로 로봇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인간. 로봇을 이방인처럼, 불청객처럼 여기며 맹목적으로 그들을 싫어하는 모습은 분명 옳지 않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 AI에 대해 막연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여 AI나 로봇이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러한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로봇과 인간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I로봇에 대한 근거 없는, 맹목적인 반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봇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만드는 기계이다. 제조 목적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로봇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로봇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것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감을 없애려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더 이상 로봇이 하는 일에 얽매여있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창엽, 이현정, 신지섭 학생의 최종보고서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2) 참여자 : 이창엽(의생명과학과 15) 이현정(의생명과학과 15)
신지섭(의생명과학과 14)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3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11월 3일 ~ 2017년 11월 14일 (총 9시간)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11.3	13:30-16:00	해룡학사 소통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감상 및 시를 주제로 토론
2017.11.9	13:30-16:00	해룡학사 소통실	'아일랜드' 감상 및 복제인간을 주제로 토론
2017.11.14	13:30-16:00	해룡학사 소통실	'AI' 감상 및 인공지능을 주제로 토론

2. 프로그램 소감

의생명과학과 세 명이 모여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하기 위해서 영어 모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에 맞게 주제에 관련된 SF영화 세편을 선정하였고 영화를 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본 영화들은 대부분 기술이 가져올 비극적인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철학적 사고를 잃지 말아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기술’에 대한 영화를 보았지만,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얻은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모두 무척 뿌듯한 마음입니다.

3. 활동 사진





II. 김동갑, 신혜영 학생의 활동보고서

택시운전사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영화감상 장소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 제목	택시운전사
감독	장훈
주연	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류준열 등
영화 장르	드라마
줄거리	<p>1980년 5월, 서울 택시운전사. “광주? 돈 워리, 돈 워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은 외국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선다.</p> <p>광주 그리고 사람들. “모르겠어라,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아야 하는 만섭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선 광주. 위험하니 서울로 돌아가자는 만섭의 만류에도 피터는 대학생 재식(류준열)과 황기사(유해진)의 도움 속에 촬영을 시작한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만섭은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에도 점점 초조해지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김동갑(바이오공학과 20121031)

이 영화는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의 통역사로서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 택시운전사 김만섭이 광주로 향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주요 소재이다. 이들은 광주시민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을 가하는 공수부대를 목격한다. 이 참혹한 광경에 위르겐 힌츠페터는 그것을 촬영해 세계로 알려야겠다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고 택시운전사 김만섭은 처음에는 택시비에만 신경 썼지만 힌츠페터와 그가 기록한 기록물을 인천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간 광주에서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잔혹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는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흘렸던 피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세계에 알린 외신 기자들의 땀에 감동하였다. 영화는 내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겼기에 택시운전사의 주요 등장인물인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인물과 김사복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조사해 본 결과 영화 속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매우 많고 영화로 각색하기 위해 투입된 영화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점이 불쾌했다. 첫 번째로, 김만섭은 어린 딸을 혼자 어렵게 키우며 월세마저 10만원을 밀려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된 후 김사복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했고 여러 언론과 주변 증인들의 증언으로 대조해본 결과 그가 김사복씨의 아들이 정황상 확실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사복씨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아니었고 영어를 매우 잘하는 외신기자 전용 호텔택시 운전사였다고 한다. 영화에서 김만섭은 영어를 몇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해 힌츠페터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나오는 점과 다르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김사복씨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광주에 관련된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몰랐고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영화가 개봉되고 영화를 보고 온 자신의 아들이 영화에 나오는 택시운전사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김사복씨의 아들은 영화를 보러 나왔고 상영 후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위르겐 힌츠페터씨가 김사복씨를 애타게 찾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는 SNS등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김사복씨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기자들이 그를 통해 그 당시 김사복씨와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확인결과 맞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김사복씨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광주에 갔었고 군인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아버지가 광주에 갔다 왔을 때에 차가 찌그러져 있었던 것을 봤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이 증언 역시 그가 진짜 김사복씨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아무튼 영화에서는 힌츠페터씨가 김사복씨를 찾았지만 그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김만섭이 힌츠페터를 도와줬던 일이 발각되어 군부정권에게 화가 미칠까 봐 가명 김사복과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어주었다는 설을 채택했는데, 그의 이름은 진짜 김사복이었다는 점이다. 영화에서는 늙은 김사복이 신문에 나온 늙은 힌츠페터가 자신을 찾는 보면서도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하고 말지만 실제로 김사복씨는 광주를 다녀온 지 5년 후인 1985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힌츠페터가 그렇게 애토록 찾았지만 그 동안 찾지 못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온 힌츠페터와 관련된 것이다. 힌츠페터는 매우 무뚝뚝한 캐릭터로 나오지만 사실은 광주 사태를 촬영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촬영을 중단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또한 영화에서는 힌츠페터 혼자 서울로 온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독일인 기자가 힌츠페터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고 하는 점이 다르다. 게다가 영화에서는 힌츠페터가 녹화된 영상을 일본으로 보내고 한참 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오지만 힌츠페터는 영상을 전해준 후 곧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촬영을 재개했다고 한다. 어찌됐든 위르겐 힌츠페터는 굉장히 용감하고 정의로웠던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는 1980년 후반에 광화문 집회 때도 촬영을 하던 도중 사복 경찰에게 척추부상을 당해 평생 후유증을 앓았다고 한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가 조밀하게 짜여진 잘 만든 영화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의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영화의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영화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사복은 영어 몇 마디 못하고 까불거리는 성격으로, 힌츠페터는 차갑고 까칠한 성격으로 다소 왜곡 되어 기억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사교성 좋고 영어 잘하던 김사복씨와 취재도중 안타까움에 눈물을 터트리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힌츠페터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을 것이고 그 시대와 그 시대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기에 충분히 의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거든 단순히 영화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피 흘리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들과 5,18 사건에 대해 찾아보거나 기억하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혜영(바이오공학과 20144257)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중심인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했다. 국민들은 이를 규탄해왔고 민주화 운동인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거세지자,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내린다. 대학생들 비롯한 시민들은 이를 규탄하며 집회가 이어졌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영화는 이 시대가 주 배경이며 이미 “KBS 스페셜 - 푸른 눈의 목격자”이라는 2003년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인 기자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일본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중 한국에서 광주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사태 2일째인 1980년 5월 21일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힌츠페터는 광주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를 찾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가난한 택시 기사 김만섭을 만난다. 김만섭은 월세가 1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힌츠페터가 자신을 광주로 데려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주는 기사에게 10만원과 팁을 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기사에게서 힌츠페터를 고객으로 채간다. 김만섭과 힌츠페터는 그렇게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김만섭과 무뚝뚝한 힌츠페터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만을 갖는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해서 마주한 광주는 입구부터 바리케이트와 군인들이 굳게 서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다. 김만섭은 광주 내로 출입할 수 없다는 군인들의 엄포에 차를 돌렸고 광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택시비를 줄 수 없다는 힌츠페터와 옥신각신한다. 김만섭은 그렇게 셋길을 찾아갔지만 역시 군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힌츠페터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무역상인 것처럼 꾸미는 기지를 발휘해 광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촬영만 할 뿐이었는데 우연히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시위대와 마주친다. 힌츠페터는 택시에서 내려 다친 그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시민들을 촬영한다. 이에 놀란 그들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로 향하고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광경은 정말 참혹했다. 군인들은 거침없이 시위대를 무력과 폭력으로 진압했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옥상에서 내려온 힌츠페터마저 이젠 촬영하는 모습이 보안사 요원들의 눈에 띄어 타겟이 되어버린다. 이에 김만섭은 통금시간에 맞춰 힌츠페터와 함께 계약했던 대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택시 영업소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된다.

밤이 되어버렸고 혼자 남게 된 딸에게 그 날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김만섭은 통화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기사들로부터 군인들이 외부로 연결되는 전화 선마저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문사에서 알리려고 하자 광주 MBC마저 폭파시켜버린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 떠난 힌츠페터와 김만섭은 보안사 요원의 눈에 띄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서로 협동해 그곳에서 빠져나온다. 아침이 되고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김만섭은 힌츠페터를 뒤로 하고 딸과 소풍을 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광주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만섭은 서울 택시에 대한 수색이 활발해졌기에 광주 택시 기사들의 도움을 얻어 서울 택시 번호판을 광주 택시로 바꾸고 광주 기사들만 아는, 은밀한 샛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군인들의 검문을 피해 광주를 빠져나온다. 서울로 가기위해 순천으로 향한 김만섭은 밥을 먹다가 현재 광주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천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 내용은 광주에서 폭력배와 전문 시위꾼 심지어 북한까지 개입해 공수부대가 진압 중이라는 말이었고 이에 김만섭은 힌츠페터를 무사히 광주에서 벗어나게 해 외국에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 서울로 가던 차를 돌려 다시 광주로 향한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광주의 병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죽어있었고 이에 절망에 빠진 힌츠페터를 데리고 시위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자고 설득한다. 그렇게 향한 시위현장에서 군인들은 이제 시위대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발포해버리기까지 한다. 이 장면까지 촬영을 마친 힌츠페터와 김만섭은 그대로 전에 이용했던 샛길을 통해 광주를 빠져 나오려고 하지만 이미 군인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초소가 생성된 상태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걸렸고 광주에 들어올 때와 같이 힌츠페터를 무역상으로 속이지만 트렁크에 몰래 숨겨놓았던 서울 택시 번호판과 힌츠페터의 카메라가 발각되고 만다. 하지만 검문 중이던 군인이 못 본척하며 그들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무사히 통과하는 듯 했지만 보안사 요원들의 차량이 그들을 추격해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직면하지만 광주 택시 기사들이 차량을 가지고 등장해 보안사 요원들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시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도움을 준다. 서울에 도착한 힌츠페터는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일본으로 출국을 위하기 위해 일부러 다음날 비행기 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당일 날 급하게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1등석으로 예약한다. 그리고 과자상자에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넣어 숨겼고 그렇게 떠나기 전 김만섭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김만섭은 자신이 힌츠페터를 도와 준 사실이 발각된다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지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택시에 꽂혀 있던 사복점 명함을 보고 김사복이라고 적고 번호마저 다르게 적어준다.

영글 클럽(2017-2)

힌츠펠터는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갔고 외신에 광주사태에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영화는 마지막에 힌츠펠터가 김사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과 결국 김사복이 기사를 보고도 일부러 만나지 않아 찾지 못한다는 결말로 끝이 난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실제로 위르겐 힌츠펠터가 김사복을 만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힌츠펠터는 2016년 1월 5일에 세상을 떠나 결국 찾지 못한다는 자막으로 영화가 끝이 난다.

사실 5월 18일이 됐든 4월 19일이 됐든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른다. 나 역시도 그저 광주 시민이 군부정권과 싸운 날, 쉬는 날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영상이 주는 파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준 파장은 엄청 났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인만큼 실제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히 그 날의 모습이 담겨져 나왔고 그 내용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공수부대에 맞서 싸운 순수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총칼 앞에 죽어가는 모습이 특히나 슬펐다.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뜻 깊고 기억할 만한 영화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터스텔라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해룡학사 휴게실
영화 제목	인터스텔라 (2014)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주연	메튜 맥커너히, 앤 헤서웨이, 마이클 케인, 제시카 차스테인
영화 장르	SF
줄거리	<p>“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p> <p>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온다.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왔고, NASA도 해체되었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 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워진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들은 이제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간다. 그리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김동갑(바이오공학과 20121031)

이 영화는 20세기 인류의 환경파괴로 살기 척박해진 2040년 지구가 주 배경이다. 질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에 의해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인류는 마지막 남은 경작 가능한 식량 옥수수를 키운다. 사람들의 직장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대부분 농부로서 살아가고 학교에서 마저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권장한다. 주인공인 쿠퍼는 전직 나사 소속 비행사였지만 역시 농부로서 살아가는데 우연히 자신의 집에 모래먼지로 만들어진 좌표를 따라 향한 곳에서 발견한 조그마한 나사 기지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나사에서 토성 오른쪽 부분에 열린 조그마한 원홀을 통해 사람들을 보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발견하면 사람들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행성을 찾고 있었다. 쿠퍼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새로운 우주공간으로 향하는 우주선 인듀런스 호를 타고 지구를 떠난다.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는 수많은 행성이 있었는데 그중 선발대가 가본 후 살기 적합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세 개의 행성이 있었다. 이 행성들은 선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따 각각 밀러 행성, 에드먼드 행성, 만m 행성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밀러행성부터 착륙하기로 한다. 밀러행성은 물도 있었고 공기도 있었으며 거대한 산도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블랙홀의 자기장에 의해 물이 수 백 Km에 걸쳐 서있었던 파도였고 그것을 깨닫고 급하게 파도를 피해본다. 우주선과 사람들은 물에 잔뜩 젖어버렸고 그 영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탐사선을 다시 고쳐 밀러행성을 떠난다. 밀러행성에 착륙 후 얼마나 지나서 왔는지 시간을 세어 보니 2시간에 고장으로 인해 지체된 시간까지 합쳐 총 3시간 가량이 흐른 상태였고 이 행성에서 흐르는 시간은 블랙홀의 자기장에 의해 지구보다 훨씬 느리게 가기 때문에 1시간에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23년 4개월이나 흐른 상태였다. 따라서 밀러는 밀러 행성에 도착한 후 신호를 보냈고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된지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구에서는 상황을 알 수 없었고 10년간 생존 신호를 수신하게 된 것이다. 쿠퍼가 밀러행성 탐사를 끝마치고 인듀런스 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단 3시간 만에 지구에서 23년 동안의 메시지가 온 상태였고 12살이었던 쿠퍼의 딸은 쿠퍼보다 나이가 많은 35살이 되어있었다. 그녀의 오빠인 탐은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지만 머피는 이미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중력 방정식의 창시자인 브랜드 박사의 수제자로서 어엿한 수학자가 되어있었다. 인듀런스 호는 강한 중력장으로 지구로 신호를 보낼 수 없고 받을 수만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 간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구에서 보내는 신호도 도플러효과에 의해 강한 중력장에 의한 주파수 변이로 인듀런스 호가 받을 수 없다.

쿠퍼일행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한 자원을 생각해서 만스행성과 에드먼즈 행성 중 한 곳만 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아멜리아는 자신의 연인인 에드먼즈를 구하러 가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에드먼즈 행성에 가자고 설득하지만 쿠퍼는 에드먼즈 행성에서 오는 신호는 이미 끊겼고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스행성에 가는 것을 채택한다.

그렇게 도착한 만스 행성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쿠퍼 일행은 동면 중이던 만스 박사를 깨운다. 만스 박사는 이 행성이 암모니아로 가득하지만 지표면의 탄화수소와 결합하여 사람이 호흡할만한 기체를 가지고 있고 지하에 내려가게 된다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한다. 이를 알고 쿠퍼 일행이 돌아가려고 하자 만스 박사는 쿠퍼일행을 놔두고 혼자서 비행선을 타고 행성을 탈출한다. 사실 만스 행성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행성이었는데 혼자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았던 만스박사는 지구에 생존하기에 적합한 행성이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고 동면중인 상태였는데 정착할 줄 알았던 쿠퍼일행이 떠나려고 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뒤늦게 쿠퍼 일행이 만스 박사를 비상용 우주선을 타고 추적을 하는데 만스 박사는 인듀런스호에 무리하게 도킹을 시도하다가 기압 차에 의한 모듈 폭발로 사망함과 동시에 쿠퍼 일행을 위험에 빠트린다. 여기서 인터스텔라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폭발로 인해 67RPM으로 회전하며 멀어져 가는 인듀런스호에 전직 비행사였던 쿠퍼가 비상용 우주선의 RPM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도킹하는 장면이 나온다.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복선의 연결로 인한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씬이었다. 그러나 인듀런스호는 이미 블랙홀의 직접적인 중력권에 들어가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쿠퍼는 자신을 희생하여 블랙홀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은 블랙홀 밖으로 내보낸다. 이때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블랙홀은 이 영화의 영상미를 대표하는 매우 아름다운 장면인데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빛과 시공간마저 휘어서 사라지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나 블랙홀 외부공간이 내부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내부공간은 외부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생기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띠 마저 묘사되어있는데 기존의 천체관측 기기에서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 검은 점만 관측됐었지만 작품을 위해 킵손 물리학교수의 새로운 블랙홀 모델에 대한 이미지화를 상대성이론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한 조나단 놀란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에 의해 표현되었고 이 블랙홀 모델의 영상미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블랙홀로 들어간 쿠퍼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또 한번 감탄을 할 수 있었는데 브랜드 교수는 이미 중력방정식을 풀었지만 중력방정식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중력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블랙홀 내부를 관찰하며 특이점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쿠퍼가 직접 들어감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블랙홀 내부의 공간은 5차원을 쿠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방 서재의 시공간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쿠퍼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는 블랙홀 내부에 대한 데이터를 미세한 전류의 자극을 이용해 모스부호로 시계 초침에 옮겨 딸 머피가 해석하길 바란다.

결국 머피에 의해 해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력이론이 완성되고 인간은 5차원공간을 조작할 수 있어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인터스텔라의 내용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끝나지만 조금만 공부해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해보는다면 영화의 내용전개, 과학적 이론의 적용, 영상미등이 초장부터 깔려있었던 복선들이 점차 종장으로 집중되어 해결됨으로써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와 감동이 있는 영화이다.

신혜영(바이오공학과 20144257)

어렸을 적 나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책가방을 놓고 놀이터에 나가 뛰놀 때가 많았다.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땅거미마저 사라질 쯤에는 새파란 초승달을 미끄럼틀에 누워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저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며 다양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연 축제에 초대되어 나도 함께 뛰노는 상상을 했었다. 이러한 추억들은 단연 나만의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면서 우리들은 한번쯤은 지구 밖 우주에는 어떤 행성이,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는 20세기 인간의 실수로 인해 지구에 이상이 생기고 곡식을 더 이상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흙먼지만 날려 사람들마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국가의 기능이 약해져 군대마저 해산된 지경이고 사람들은 모두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며 농부가 유망한 직업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인 쿠퍼 역시 과거 조종 실력이 뛰어난 파일럿이었지만 농부로서 살아간다. 나는 쿠퍼가 아이들 문제로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가서 교장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지구인의 달 착륙 사건이 모두 거짓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오로지 농업을 위한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도록 교육한다. 그러나 쿠퍼의 딸 머피가 학교에서 아폴로 탐사선의 달 착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다니자 학교의 교장은 머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말을 퍼트리고 다니는 점에 난색을 표한다. 이에 쿠퍼는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저기에 무엇이 있는가 상상하지만 어느새 교육에 의해 그러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짓밟히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꽤나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시대 사람들은 모두 점차 살기 어려워지자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을 벗어나 살아가기 위해 다방면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눈앞의 식량을 생산하여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떠올리지 않는다. 영화 속 사람들은 실제로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대부분이 농부이며 교장이 쿠퍼의 아들이 농부를 직업으로 삼게끔 권고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쿠퍼는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열려있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간 모래 먼지가 일정한 패턴을 띄는 것을 보고 그 패턴에 따른 좌표를 해석해서 찾아간 곳에는 나사의 기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브랜드 교수는 질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에 의해 마지막 식량인 옥수수마저 곧 멸종될 것이고 때마침 토성 옆에 나타난 웜홀을 따라 새로운 우주로 나가 인류를 퍼트리는 프로젝트에 따라 파일럿이었던 쿠퍼가 우주선 비행사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쿠퍼는 이를 승낙하여 어린 아들과 딸을 뒤로하고 지구를 떠난다.

영어 클럽(2017-2)

웬훔을 지나 나타난 우주에서는 이미 선발대로 떠났었던 밀러와 만 박사가 착륙했던 두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보고 신호를 보내는 행성으로 차례대로 향한다. 밀러 행성은 물이 가득한 행성이었지만 자기장 이상으로 거대한 산인 줄 알았던 것이 파도였음을 깨닫는다. 밀러와 그 일행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착륙하자마자 보냈던 신호를 수신했었던 것이었다. 이들이 만 박사 행성으로 향하자 이곳은 미량의 산소와 얼음이 존재하지만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고 만 박사는 이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구조 신호를 보낸 채로 동면 장치에서 동면 중이었다. 쿠퍼와 일행이 도착해서 만박사를 깨우자 만박사는 자신이 착륙한 행성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구에 돌아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쿠퍼 일행에게 우호적인 척을 하다가 이들을 배신하고 쿠퍼일행이 타고 온 비행선을 훔쳐 타고 달아나버린다. 쿠퍼는 만박사가 있던 행성에서 정박 중이던 우주선을 타고 뒤늦게 쫓아가는데 만박사는 급하게 쿠퍼 일행의 본선인 인듀런스 호에 도킹을 시도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 타스가 이미 인듀런스 호의 도킹을 막아놨는데 만 박사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던 중 실패해 폭발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쿠퍼는 폭발로 인해 점점 멀어져가는 인듀런스 호와 비상 우주선을 회전수를 맞춰 조종하여 기적적으로 도킹에 성공하지만 이미 블랙홀의 중심으로 너무 많이 다가선 우주선과 일행을 살리기 위해 쿠퍼는 블랙홀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며 자신을 희생한다. 쿠퍼 일행이 지구를 떠난 후 웬훔에서 2년, 밀러 행성에서 2시간, 블랙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던 일부 시간이 지났는데 우주에서는 거대한 블랙홀으로 인해 지구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구 시간으로 80년이나 지나버렸다. 쿠퍼가 블랙홀 중심의 중력이 조금 더 약한 사건의 지평선을 통해 들어간 블랙홀 내부는 자유롭게 시공간을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됐고 그 공간은 자신의 서적이 있던 방이었다. 쿠퍼는 기존에 브랜드 박사가 평생을 바쳤지만 풀 수 없었던 중력 방정식의 문제점을 블랙홀 내부 공간에서 깨닫고는 물리학 박사가 된 자신의 딸 머피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또한, 과거의 자신이 이 블랙홀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좌표를 보냈던 것 역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연히 다시 서재에 들린 머피는 아버지가 시계 바늘에 보낸 모스 신호를 통해 중력방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쿠퍼가 토성근처 웬훔이 있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블랙홀로 인해 우주보다 지구의 시간이 훨씬 더 빨리 흘러버렸고 자신의 딸은 할머니가 되어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됐고 물리학적 개념인 쌍둥이의 역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쿠퍼가 깨어난 곳은 중력 방정식을 통해 지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공간인 만들어 낸 쿠퍼 정류장이었고 그곳에서는 기존에 지구에서 겪었던 문제를 벗어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로서 영화가 끝이 난다.

영글 클럽(2017-2)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너무 많아 다보고 나서는 설명이 필요했다. 나는 이후 영화에 대한 해석과 물리학 이론에 대해 찾아보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 자체가 난해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해를 하고 나니 이 영화가 왜 명작이라고 칭해지는지 알 수 있었다. 과학적인 접근과 인문학적인 해석이 조화롭게 구성된 뜯어볼수록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다.

판도라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해룡학사 휴게실
영화 제목	판도라 (2016)
감독	박정우
주연	김남길, 김명민, 김영애, 정진영
영화 장르	드라마, 재난
줄거리	<p>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 폭발 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초유의 재난 앞에 한반도는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믿고 있던 컨트롤 타워마저 사정없이 흔들린다. 방사능 유출의 공포는 점차 극에 달하고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2차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발전소 직원인 '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목숨 건 사투를 시작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김동갑(바이오공학과 20121031)

지난주 수요일 임상신청 및 GMP 수업을 듣던 도중 오후 2시 28분경 긴급 재난 알림으로부터 포항 북쪽 7km 구역에서 규모 5.7 가량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가 왔다. 나는 굉장히 어리둥절했다. 경상북도 포항이라면 경기도 포천까지 수백 Km 떨어져있는 도시인데 왜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지. 그로부터 1분 뒤 내 의문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수업 중에 책상과 의자, 빔 프로젝터와 화면까지 흔들렸고 학생들은 지진을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현듯 가장 먼저 충청도에 계시는 어머니와 경기도 파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걱정이 되니 수업이 끝나는 대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부모님께서서는 큰 차가 옆으로 지나갔나 하고 마셨지만 포항에서 살고 계시는 이모님께서 굉장히 지진으로 인해 겁에 질린 상태이시고 계속 되는 여진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인터넷에는 지진으로 인해 포항에 큰 혼란이 초래 되었다고 사진들이 올라왔고 정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때 팀원 신혜영은 작년에 보았던 판도라라는 영화가 문득 떠올랐다고 하였고 이번 활동의 영화로 선정했다.

영화는 월촌리의 원자력 발전소 한별 1호기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동생, 소꿉친구이자 연인인 연주와 함께 생활하는 주인공 강재혁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보기 불편했다. 주인공 강재혁의 아버지와 형 역시 원자력 발전소 하청업체 인부로서 한별 1호기에서 일했었지만 발전소에서의 사고로 둘 다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그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은 강재혁의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녀가 기술을 배워 다른 일을 하려는, 심지어 원양어선을 타고 여름에는 동남아, 겨울에는 북 대서양에서 돈을 벌려는 아들에게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기 때문이다. 월촌리는 큰 마을도 아니며 그렇다면 이웃 사람이 둘이나 원전 사고로 죽었는데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 마을 주민들의 태도 역시 설정 오류라고 생각한다. 영화는 월촌리를 떠나 청와대의 상황 역시 비춰진다. 처음에 등장하는 백발의 인물이 대통령인줄 알았더니 국무총리로서 실세였고 대통령 강석호는 그와 대립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한별 1호기의 소장 박평섭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청와대에 어필하지만 국무총리에 의해 무시되고 뒤늦게 보고서를 받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향해 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그가 얼마나 힘없는 대통령인지를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사건의 전개는 우려했던 대로 월촌리에 규모 6.1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마을은 물론 지어진 지 40년이 지나 노후된 한별 1호기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소장 박평섭은 청와대에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보고로 인해 한통속인 청와대 국무총리와 한국 수력원자력 경영진의 압력에 의해 좌천된 상태였고 새로 부임한 소장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상황은 노후화된 냉각수 관에 큰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고 있는 상태였고 핵연료는 냉각수가 없어진다면 물을 분해시켜 수소와 산소를 계속해서 생성해낸다. 결국 계속 생성된 수소로 인해 원전은 폭발 위기에 봉착하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는 주민 대피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의견은 묵살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해야 폐로 하지 않는지만 고려하며 현재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결국 한별 1호기의 원자로 격납 용기 내부 압력이 수 백 킬로 파스칼의 힘으로 매우 높아져 폭발이 일어나는데 원자로의 노심용융인 멜트다운이 일어나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들과 원전 폐로와 외부로 정보 유출만을 막고자 하는데 노심이 흘러내리는 멜트스루를 막기 위해 해수를 뿌리려는 박평섭 소장의 대응과 소방관의 대처 역시 한국 수력원자력 경영진과 함께 막아버린다. 해수를 뿌리게 되면 그 원전은 반드시 폐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원전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해 세계에 알린다.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한 국민들은 항공 철도 항만을 통해 자국에서 도망치려고 하며 청와대 역시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장면들을 보자마자 정확히 원자로 격납 용기 파괴 및 멜트다운 상황, 일본 정부가 세계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케이스를 모티브로 하여 묘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영화는 그 과정을 너무 진부하게 늘어놓거나 한국 수력 원자력, 국무총리의 단면적인 악을 설정함으로써 스토리의 참신함을 떨어트리고 답답함을 유발했다. 특히나 주인공 강재혁의 여동생과 연인, 어머니가 고속도로에서 피난을 가던 도중 고속도로 뒤편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방사능이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장면은 감독이 전작인 연가시에서 보여주었던 유치한 재난 영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결국 영화의 결말은 뒤늦게 정신 차린 대통령이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킨 국무총리의 자리를 뺏어 직접 상황을 통제하는데 한별 역시 좌천된 박평섭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권한이 복귀되어 다시 상황이 역전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개인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게 됐고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피폭되어 죽으러 갈 인원을 구하는 상황이 됐다. 주인공 강재혁과 그 친구 만섭을 필두로 어차피 죽을 목숨 가족을 위해 죽자는 말을 뒤로 하고 투입된다.

결국 투입된 한별 인부들에 의해 더 이상의 붕괴를 막아내고 나머지 인부들은 죄다 죽는 결말로 끝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막고 천장을 폭파시켜 새로운 수조를 만들자는 강재혁의 제안에 따라 실행하고 폭발물을 다룰 줄 안다는 이유로 내부에 혼자 남은 강재혁은 방송을 통해 유언만을 남기고 쓸쓸히 죽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는 설정과는 다르게 강재혁이 유언을 남기는 과정이 길고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슬픔이 강요되었다는 비판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영화의 원전사고 과정은 확실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정부의 대처를 철저하게 조사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과정을 그대로 묘사했을 뿐 창의적인 응용이 부족해 보였고 차라리 영화적인 각색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에서 증축중인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감상 후 증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얻은 순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주 수요일 발생한 지진은 5.7 규모의 지진인데, 영화 속 규모 6.1 지진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고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용도로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신혜영(바이오공학과 20144257)

나는 작년에 운 좋게 시사회에 당첨되어 이 영화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영화감상 활동에 채택한 이유는 2017.11.15. 수요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이다. 지진은 오후 2시 29분 경 포항 북쪽 7km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현재(11.20)까지 규모 2~3 가량의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역시 수업을 듣던 중 지진을 느꼈는데 규모 2~3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스크린이 흔들리고 앉아 있는 의자마저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의 강한 진동이었다. 수업 중 학생들은 놀라기도 했고, 아예 감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불과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11.08. 수요일에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진이 발생하자 아무도 대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지진 상황 대피 훈련 때는 지진 안전지대인 우리나라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한다는 게 정말 웃겼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지 않았다. 물론 물건이나 건물 등이 파괴될 정도의 강한 지진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금방 패닉에 빠져 대피할 생각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지진에 관련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지진의 발원지는 경북 포항이지만 서울, 경기, 충청, 전라등 사실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다고 한다. 이 판도라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을 때는 과연 저렇게까지 될까 생각했었지만, 다시 한 번 활동을 위해 보게 되자 이번 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의 위험에 대해 제시했다는 것에 좋은 쪽으로 재평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울산광역시부터 부산광역시까지 꽤 많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통해 위험을 직감하고 원전을 없애는 운동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들이 어렸을 적 원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비록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로부터 들은 원전의 위험성과 편리성을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주인공 강재혁은 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형이 피폭으로 죽었음에도 사망 보상금으로 사업을 해보려다가 실패해 결국 똑같이 원전에서 일하고 있다. 강재혁은 자신의 연인인 연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원양어선을 타고 1년 내내 일해 돈을 벌어오려고 한다. 한편 월촌리 사람들은 원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면서도 경계하기도 하는데 원전의 소장인 박평섭은 청와대에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의해 미움을 사 다른 부서로 좌천된다. 6.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자 내진 설계가 되어있다는 월촌리의 원전 한별 1호기에는 지어진 지 40년이나 지나 냉각수가 새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원전의 상황실에서는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지만 주민을 대피시키자는 대통령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실세인 국무총리를 필두로 상황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는 데에만 급급하다. 외신과 기자들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지만 청와대는 그마저도 기자들이 멋대로 떠드는 것을 막으라며 저지한다. 결국 끓어오르던 원전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천장 부분이 폭발하는데 이때에는 해수를 사용해 열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또 다시 청와대와 한국 원자력 경영진은 한통속으로서 해수를 사용하면 원전을 폐쇄 해야하기에 금전적 손실만을 고려하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을 막았다. 그러나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한별 1호기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해외에서는 자국민의 귀국을 서둘렀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재난 컨트롤도 하지 못하며 무정부상태에 가깝게 된다. 시민들은 원전에서 멀어지기 위해, 한국을 떠나기 위해 철도, 항만, 교통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상실감에만 빠져 있다가 영부인의 격려를 받고 정신을 차려 다시 재난을 통제한다. 대통령은 그제서야 박평섭 소장의 조언대로 원전에 바닷물을 뿌려 열을 시키는 것을 명령한다.

원전의 상황은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상태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폭발직전의 상태였으며 냉각수마저 방사능에 노출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저 원전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통해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한 인부의 희생만을 바라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원전 내부로 들어간다면 피폭으로 인해 사망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군인, 소방관들도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공병부대를 침투시켜 작업시킬 생각도 해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절된다.

주인공 강재혁과 한별 1호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이미 내부피폭이 상당히 진행되어 피토를 하는 등 죽을 목숨이었고, 강재혁의 소꿉친구였던 길섭이 어차피 죽게 될 목숨 인부들에게 같이 들어가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다. 다들 머뭇머뭇하지만 가족을 위해 함께 하자는 강재혁의 동참에 다같이 원전 투입에 동참한다. 원전 내부는 2차 폭발에 가까운 상황 이었고 핵연료 수조의 균열을 막아보려고 그들이 노력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따라 그들이 후퇴하려고 하는 찰나에 강재혁이 누출되는 핵연료를 막기 위해 문을 봉쇄하고 천장을 붕괴시켜 새로운 수조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작업이 진행 된다.

영글 클럽(2017-2)

폭발물을 설치하고 문을 봉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폭발물을 다룰 줄 아는 강재혁이 수조 내부에 남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탈출해야 하자는 결정을 내린다. 결국 그렇게 내부에 자원해 갇힌 강재혁은 방송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희생한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영화 자체의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진부했고 연기자의 감정 표현과 사투리 연기 등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와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처, 국내 울산부터 부산까지 존재하는 고리 원전의 위험성, 최순실 게이트등이 잘 조합이 되어 현실성은 눈에 띄었다. 스토리 라인의 안정성과 각색이 좀 더 있었다면 보기 깔끔하고 좋은 영화였지 않았을까 싶다.

김동갑, 신혜영 학생의 최종보고서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글 클럽
- 2) 참여자 : 김동갑(바이오공학과 12) 신혜영(바이오공학과 14)
-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3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9월 23일 ~ 2017년 11월 21일 (총 11시간)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9.23	19:00-22:30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 택시 운전사 감상 후 감상 소감에 관련하여 토론 진행 -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야 하는가 vs 각색된 소재로서 사람들의 가슴에 인상을 남겨야 하는가
2017.10.23	19:00-22:30	해룡학사 휴게실	2014년 최고의 영화 인터스텔라 감상 후 과학적 이론 검색 및 탐색, 내용 재검토
2017.11.20	19:00-22:30	도서관	2016년 상영작 판도라 감상 후 비판 및 이점 논의 원전 사고와 관련된 정보 검색

2. 프로그램 소감

첫 번째로 채택한 영화는 택시운전사였다. 택시 운전사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로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김사복에 관련된 철저한 자료조사에 살을 붙여 만든 탄탄한 구조의 스토리가 엿보였다. 마치 그 시절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였다.

두 번째로 본 영화는 인터스텔라였는데 과거에 여러 차례 이해가 되지 않아 팀원 김동갑이 보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곱씹어서 보자는 의미에서 채택하였다. 인터스텔라 역시 스토리 면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었지만 과학적 픽션을 바탕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영화였다. 이해가 되지 않은 과학이론은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꽤나 감명 깊게 감상하였다.

세 번째 영화는 2017. 11.15.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생각난 2016년 상영작 판도라를 감상하였다. 영화의 내용상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묘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영화 내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영화 스토리상의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판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우리 조는 세차례에 걸쳐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조원과 함께 영화를 보며 여가시간을 재미있게 보낸 것도 좋았지만 영화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검색도 실시하며 영화를 잘 음미하듯이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영화를 보면서 활동한 것에 대해 영화비나, 식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3. 활동 사진



III. 박소희, 송인선, 민정현 학생의 활동보고서

Everything, Everything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영화감상 장소	학교 기숙사
영화 제목	Everything, Everything
감독	존스텔라 메기
주연	아만들라 스텐버그, 닉 로빈슨
영화 장르	드라마, 멜로/로맨스
줄거리	<p>중증 합병성 면역결핍 장애(SCID)를 앓는 10대 소녀 매디와 옆집에 이사 온 소년의 사랑 이야기</p> <p>SCID라는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어서 세상 모든 것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에 17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소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균 처리된 집 안에서 오직 상상을 통해서만 세상을 만난다.</p> <p>그러던 어느 날, 옆집으로 이사 온 매력적인 소년을 만나고, 소녀는 평범한 삶, 자유, 그리고 첫사랑, 그 눈부신 시작을 위해 위험천만한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박소희(간호학과 20162124)

인선이의 권유로 보게 된 이 영화의 제목은 [Everything, Everything]이다. 보통 영화를 보면 제목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번 것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이나 보통은 광고지를 보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번에는 예고편이나 광고지 없이 그냥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된 영화였다. 로맨스영화를 찾던 중에 정하게 되었고,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상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흥미로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의 내용은 중증 합병성 면역결핍 장애를 앓는 10대 소녀 매디와 옆집에 이사온 소년의 사랑 이야기이다. 처음 화면은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여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17년 동안 집밖으로 나간 적이 한번도 없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의사기 때문에 전적으로 엄마와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여자아이를 관리한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엄청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아이가 17년 동안 한번도 밖을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지만 엄마와 간호사의 철저한 관리와 여자아이의 질병으로 집밖을 한번도 나간 적 없는 매디의 동네로 남자아이가 이사를 오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 장면이 나는 너무 아름다웠다. 밖을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창문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매디는 엄마 몰래 남자아이를 집에 들이게 된다. 하지만 매디의 질병 상 모든 것이 무균이 된 상태에서만 접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엄마는 분노하고 철저히 그 남자를 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둘에게 엄마의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다. 결국 둘은 목숨을 걸고 매디 집을 탈출해서 여행을 가게 된다. 마지막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영화를 보고 뒤통수를 칠 정도의 결말이었다.

영화를 다 보고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전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여자아이가 아픈데도 남자아子和 여행을 가는 모습이 현실적이면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물론 여행이 사건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과연 죽음이라는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의문이 드는 영화였다.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첫 영어 활동으로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보자고 하여 영화를 고르던 중, 예전에 보고 싶었던 [Everything, Everything]이 떠올라서 같이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아서 팀원들이 모르는 영화였고 나는 전에 예고편을 보고 줄거리를 읽었던 거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

사실 영화에는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꽤나 큰 반전이 있었는데, 나는 미리 줄거리와 결말까지 읽었던 터라 놀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용을 알면서도 영화를 보는데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영화가 적당히 빠른 전개와 달달한 느낌을 주어서 만족스러웠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자신이 중증복합면역결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거의 평생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여주인공이 사실 아무 병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애의 엄마가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딸마저 잃을 까봐 두려운 나머지 딸에게 가짜 병을 만들어내서 세상과 단절 시켰다. 딸은 의사인 엄마 말을 믿고, 밖에 나가면 자신이 죽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나가고 싶어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세상을 접하고 유리창으로만 바라보며 18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것이다. 사랑했던 엄마가 자신의 속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남자친구가 이사간 뉴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영화의 결말이었다. 주인공은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자신은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약간 미약한 반응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엄마가 자신에게 정말 최고의 엄마였기 때문일까. 나라면 너무 화가 나서 편지도 안 쓰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이었을지 잘 표현을 못한 것 같다. 막바지에 발견된 진실이라서 그런지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친구와는 뉴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2탄이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다. 평생을 집안에서만 살다가 세상밖에 나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세상의 쓴 맛을 느끼며 집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물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주인공의 엄마가 의사여서 그녀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생활을 했었다. 엄마를 벗어나고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민정현(간호학과 20162122)

이 영화의 주인공 매디는 중증합병성면역결핍장애(SCID)를 앓고 있다. 그래서 매디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인 엄마의 보호아래 무균처리 된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지속해왔다. 친구라고는 오직 그녀의 상주 간호사 뿐이었다.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매디의 집은 집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었고 철저한 무균상태의 집안에서 매디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지낸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멸균된 물건만 이용하고 살아온 매디가 옆집에 이사 온 울리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울리 또한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고 두 사람은 메신저나 메일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운다. 이젠 직접 만나고 싶어진 두 사람은 간호사에게 엄마 몰래 부탁하여 집 안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비밀스럽게 사랑을 키워가던 중, 엄마에게 들리게 되고 만날 수도, 연락을 할 수도 없게 되자 매디는 목숨을 걸고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 울리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하며 매디와 울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매디는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게 된다. 이 영화에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내용이다. 알고 보니 매디는 SCID가 아니었고 의사인 그녀의 엄마가 매디를 과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평생을 속이며 살았던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평생을 스스로가 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며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남편과 아들에 이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려던 엄마의 욕망이 자신의 자녀를 병들게 하고 말았다.

울리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던 엄마와 달리 매디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를 보러가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서 주었다. 매디는 울리와 함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삶의 활력을 찾게 된다. 이것이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매디의 엄마처럼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울리처럼 나를 희생함으로써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라보려 하는 이해이다.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미래는 나만을 생각하는 욕망이 아닌,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랑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 이 영화는 소설을 각색한 것인데 원작이 어떤지 매우 궁금해졌다.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도 접해보고 싶다. 많은 감동과 여운을 주었던 영화였다.

Lean on me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영화감상 장소	학교 기숙사
영화 제목	고독한 스승(Lean on me)
감독	존 G. 아빌드센모건 프리먼
주연	모건프리먼
영화 장르	드라마
줄거리	<p>1967년 뉴저지주 패터슨, 이스트사이드 교교 조 클라크(Joe Clark: 모건 프리먼 분)는 촉망 받는 젊은 교사로 일류 학교 중에서는 최고인 뉴저지의 이스트 사이드 교교에서 그의 경력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20년 후, 학교 내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등 너무나 타락해버린 그 학교에 클라크는 교장으로 돌아온다. 겉보기에도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을 진정한 배움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그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첫 번째의 행정적 조치로 그는 그 동안 너무 오래 학교에 머물러 다른 학생들의 빈축을 샀던 300여 명의 구제불능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다음으로 학교의 모든 출입구에 사슬을 채워 지역 마약상들이 학교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집단퇴학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고 학교봉쇄로 클라크는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박소희(간호학과 20162124)

2017년도, 한국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한 시기였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ean on me 를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특히, lean on me의 조 클라크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에 왜 그토록 힘을 썼는지 알게 되었다. 영화에서 조 클라크 선생님께 주어진 과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고사 합격률을 70%정도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트사이드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교 수준은 심각하다. 학교에서는 마약이 거래되고 폭력이 일상화 되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다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조 클라크 선생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 같다. 사회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절, 올바른 방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을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습득한다.’ 하는 명언이 있다. 이것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과 이어지면 어린 시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배우게 되면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 청소년 시절에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등의 기초 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 올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지식인이 된다. 이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조 클라크 선생님이셨기에 그는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셨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조 클라크 선생님의 열정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결이 아닌 정직이나 해임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꼭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상급관료직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는 교감선생님의 말을 듣고 반성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며, 교사들에게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장선생님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했다. 학생들에게 교장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었다. 누구든 고민이 있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의 문을 두드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카니샤가 조 클라크 선생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론 엄격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비춰진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미래에 간호사의 길을 걸으려는 내가 본받고 싶은 열정을 가진 인물이 되었다.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영화의 주인공인 클라크는 자기 자신을 버린 학생들만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언행을 저질렀던 학생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약을 하고 그것을 끊지 못한 학생들은 가차 없이 버렸는데, 그것은 마약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샘의 경우에는 마약에 손을 댔었지만, 퇴학을 당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각하고 있었고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에서 아직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을 보였기에 다시 받아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샘에게 “인생에서 실패하면 부모 탓이 아니고 백인들 탓도 아니다. 너희 자신의 탓이고 너희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또다시 퇴학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며 기회가 오면 자신이 마지막 기회를 소중히 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시험 전 날 흑인들과 히스패닉, 가난한 백인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이스트 사이드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쓸모 없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그런 시선을 주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사람들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이 말은 학생들이 시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단기간에 기초학력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의 소질, 흥미, 동기, 가능성, 잠재력 등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조금 극단적이고 괴짜 같은 면을 보이긴 했지만 학생들의 장점을 짚어주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어 75%이상이 기초학력고사를 통과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영화는 한 명의 선생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화 마지막에 시험 전날 교장인 클라크와 교감선생님이 클라크가 교사들에게 너무 무심하고 항상 다그치기만 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그 다음날 다 함께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노래 속에 “lean on me”라는 가사가 많이 나왔다. 그것을 들으며 “lean on me”라는 영화의 제목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약간 감동을 느꼈다. 클라크는 학생들이 서로 기대고 도와가며 자신들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함을 강조한다. 클라크 본인도 교감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클라크의 변화도 이 영화의 주제에 맞는 것 같다.

영어 클럽(2017-2)

한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도 나에게서는 카니샤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았다. 클라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임신사실이 밝혀졌고, 엄마와 셋이서 의논하기로 했으나 클라크가 수감되면서 이야기가 끊기게 된다. 카니샤의 엄마도 15살 때 카니샤를 낳고 학교를 떠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카니샤가 엄마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만 같았다. 클라크라면 카니샤가 끝까지 학교에 나오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으나 카니샤에게 더 밝고 큰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로서는 실망이 컸다. 왜 자신을 더 소중히 아끼고 관리하지 못했을까? 그녀를 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기초학력평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성교육과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 역시 학교임을 보여준 것 같다.

민정현(간호학과 20162122)

이 영화의 배경인 이스트사이드 고교는 하나의 '일탈자 소굴'에 다름없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일탈하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커닝 오히려 그 곳에 들어가면 더 학생들이 반항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란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성을 함양시켜 주는 곳이다. 그러나 이스트사이드 고교는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교권이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클라크 교장은 마치 북한을 떠올리게 하는 독재형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보다 못한 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라크 교장은 학교의 시설, 분위기, 교육 체제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 내 바꿔놓아야 했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한 학교 운영 방법을 채택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 학교를 바꿀 사람들, 즉 다른 교사들을 돌보지 않고 권위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불만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교장과 교사 간에 지켜져야 할 예의를 무시하고 일관되게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억압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클라크 교장이 교감의 충고를 받아들여 교사들의 고충을 보듬어 주기는 했다. 그로 인해 불만을 갖고 있던 교사들도 인내심을 더 가지고 학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라는 조금 놀라웠다. 이스트사이드 고교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교내에서 흡연과 폭행을 일삼는 것은 기본이고, 흥기 소지에 마약 거래, 심지어 성추행까지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조금 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조금 충격적이었고, 하지만 이를 통해 교육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불만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은 많은 행정업무도 맡고 있다고 들었다. 공부에 의지도 없고 반항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끌어가느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녀와 야수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영화감상 장소	학교 기숙사
영화 제목	미녀와 야수
감독	빌 콘돈
주연	엠마 왓슨, 댄 스티븐스, 루크 에반스
영화 장르	판타지, 뮤지컬, 멜로/로맨스
줄거리	<p>스크린에 재탄생한 세기의 걸작! 전 세계가 기다려온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p> <p>똑똑하고 아름다운 ‘벨(엠마 왓슨)’은 아버지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운명적인 사랑과 모험을 꿈꾼다.</p> <p>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를 찾아 폐허가 된 성에 도착한 벨은 저주에 걸린 ‘야수’(댄 스티븐스)를 만나 아버지 대신 성에 갇히고, 야수 뿐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신비로운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p> <p>저주를 풀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된다.</p> <p>성에서 도망치려던 벨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 야수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차츰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박소희(간호학과 20162124)

노래와 분위기와 영상미가 모두 어우러진 영화

삶이 힘들고 세상을 보는 시간을 바꾸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를 통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들 그리고 영화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다. 미녀와 야수를 보면서 나는 세상을 아름답고 편견 없이 봐야한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다.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슴속에서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엠마 왓슨이 예뻐서, 노래가 좋다고 해서 보고 싶은 영화였지만 이제 이 영화는 나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영화가 된 것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녀와 야수 이야기와 같다. 외모를 판단하던 왕자가 야수가 되어 성에 갇혀 살고 성격 좋고 마음씨 예쁜 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길을 잃으셔서 성으로 가다가 야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수를 외모가 아닌 마음씨로 좋아하게 된다. 갇힌 왕자는 마녀의 저주에 걸렸는데 야수의 모습으로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를 장미꽃이 떨어지기 전까지 만나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이지만 영화에서는 교훈들을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장면 중에 나오는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이라는 장면은 잊을 수 없다. 가사를 보면 어떻게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 되는 걸까? 어떻게 이야기 하나가 결코 잊혀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건 사랑 때문 일거야 로 시작한다.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를 한다. 우리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사랑은 혼자서 위한 쓸쓸함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은 흐르는 강과 같이 영혼을 가로질러 흐른다고 표현한다. 나는 이 장면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서 야수와 미녀 사랑이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느꼈고 사실 외모보다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느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내용이 뻔하고 책 속에서 본 내용 그대로라 결말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연기와 분위기 그리고 노래와 이미지가 너무나 적절히 어우러져 보는 내내 그리 보고 나서도 그 장면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삶이 힘들거나 힐링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다.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는 내게 미녀와 야수의 개봉은 많은 설렘을 주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 엠마 왓슨이 주인공 벨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과 벨과 엠마 왓슨의 이미지도 잘 어울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기다리고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극장에 개봉을 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치고 나중에 보게 되어서 약간 마음이 식은 상태였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영화를 봤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별로여서 실망감이 컸다. 특히나 야수의 얼굴이 잘 생겼을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야수의 얼굴은 정말.. 야수다웠다. 잘생긴 꽃미남과 이루어지길 기대했지만 어떻게 캐스팅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는지.. 엠마왓슨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돈을 아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화가 너무 지루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재미있었는데 실사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작을 살려서 만든 영화라서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함도 없었다. 엠마 왓슨이 노래하는 것도 그냥 노래하는 구나 정도였고, 다른 CG라든가 배경들이 특별하지도 않아서 솔직히 별로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다. 게스톤은 정말 비호감이었고, 딱히 마음이 가는 캐릭터도 없었다. OST 노래는 좋았지만 새롭지 않아서 그냥 그저 그랬다. 영화의 엔딩과 영화의 내용을 바꿨다면 어땠을 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미녀와 야수의 배경과 캐릭터를 살린 체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넣거나 엔딩을 바꿨다면 어떨까 싶었다. 예를 들어 미녀와 야수가 서로 친해지는 방법을 다르게 하거나, 둘이 다투는 내용을 더 넣거나, 성안에 있는 캐릭터를 한 가지 더 새로 추가 했어도 재미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게스톤이 사실 비호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매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서 벨이 정말 내면을 보는 여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솔직히 그 동네에 관찮은 사람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벨이 그나마 관찮은 야수에게 끌렸을 것 같다. 만약 더 관찮은 인물들이 있었다면 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에게 조금 더 교훈을 주거나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을 던져주었다면 좋았을 거 같다. 그래도 디즈니 실사판은 언제나 예쁜 의상과 엠마 왓슨 같은 아름다운 여주인공을 보며 눈호강을 하게 해주는 것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관찮을 것 같다.

민정현(간호학과 20162122)

미녀와 야수의 줄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동화의 그 줄거리이다. 영화시간이 2시간이라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화려한 영상미와 주인공 엠마 왓슨이 미녀와 야수의 캐릭터와 잘 맞는 것 같아 영화에 더욱 집중이 되었다. 영화는 중간 중간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뮤지컬영화 특유의 신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뮤지컬적 구성과 동화같이 신비롭고 화려한 영상미와 OST 였다.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우선,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작은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마저도 동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 같이 순수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마지막에 찻주전자 아주머니와 찻잔 아들, 훗대 르미에와 자명종시계 아저씨가 물건이 될 때는 정말 울컥하였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영화는 헤피엔딩이다. 벨과 결혼하기 위해 벨의 아버지를 한밤중에 나무에 묶어놓고 별의별 나쁜 짓을 다하는 성격 안 좋은 게스톤은 결국 야수를 공격하다가 성의 다리에서 추락해 죽고 만다. 야수는 결국 마지막 장미꽃이 떨어져 죽게 되는데 벨이 죽은 야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빠 모리스를 숲 속에서 구해줬던, 아가타라는 마을사람으로 위장해있던 여자가 나타난다. 아가타는 애초에 왕자를 야수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되살려주고 야수는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물건으로 변했던 야수의 신하들은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된다. 사실 엔딩이 다소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동화적인 영화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에 비해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녀와 야수’ 아마도 계속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고전으로 남을 것 같다.

박소희, 송인선, 민정현 학생의 최종보고서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박소희(간호학과 16) 송인선(간호학과 16) 민정현(간호학과16)
- 3) 활동 현황
 - 가. 활동 횟수 : 총 4회
 - 나. 활동 기간: 2017년 9월 28일 ~ 2017년 12월 15일 (총 11시간)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9.28	19:00-22:00	기숙사	앞으로 무슨 영화를 볼지 함께 골랐다. 일단 첫 번째 영화는 로맨스로하기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으며 영화를 보았다.
2017.10.10	19:30-22:30	기숙사	시험기간 전이라 다들 지친 상태로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공부와 관련된 영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고독한 스승을 보았다.
2017.10.19	18:00-20:00	기숙사	“일단 먹고 재미있는 걸 보면서 기분을 풀자!” 소녀들의 동심으로 돌아간 미녀의 야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2017.12.15	13:00-15:00	기숙사	마지막 활동 뒷풀이 종강하고 함께 모여서 여태 보았던 영화들과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마지막 파티를 하였다.

2. 프로그램 소감

1. 훈훈한 남주, 예쁜 여주를 보면서 눈호강을 하는 시간

: 학교 공부와 과제로 치여산 지 벌써 4학기 째, 하루하루는 우리가 원했던 대학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힘들고, 우리가 상상했던 드라마틱한 대학생활, 캠퍼스의 훈훈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랜선뿐.. 그리하여 메말라가는 감성과 젊음에 다시 불을 피우려 로맨스 영화를 함께 보았다. 결론은 만족, 대만족. 영화 속 달달함에 허해지는 우리 마음(과 뱃속)을 달래준 것은... 역시.. 블랙홀 너는 love.. ♥ 때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필요하단 결론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2. 때론 우리도 진지하다. 영화를 보며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자.

: 영화는 우리에게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도 얻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답게 교육에 관련된 영화를 보았다. 과연 한 명의 선생님이 학교를, 나아가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 모두 진지하게 의견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3.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

여자아이라면 한 번씩은 보았을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애처럼 군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시험에 지친 우리를 달래줄 영화로 딱 적당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과, 여자도 반할 만큼 예쁜 엠마 왓슨, 그리고 공주가 되고 싶게 만드는 배경과 의상. 지치고 또 지쳤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은 한 줄기의 빛이었다. 좀 더 자주 이런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간호학과 공부는 정말 힘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영화 글쓰기 클럽 활동을 통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모두 동의 하였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학교에 감사하며, 애교심이 생겼다.

이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에게서 같이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모임의 횟수가 적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고, 힘든 기억만이 남을 뻔 했던 포천에서의 2학년 가을과 겨울을 잘 견디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꼭 신청하고 싶는데, 분당에 가게 되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과 더 좋은 영화들을 같이 보고 서로 소개해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

